

보도시점 2026. 8. 8.(토) 13:00

배포 2026. 8. 8.(토) 06:00

농식품부 장관, 폭염 대비 육계농장, 시설하우스 현장점검 및 농업인 안전 특별 당부

- 축산·원에 농가의 폭염 대응 상황 점검 및 가축·농작물 관리요령 실천 당부
- 무더위 속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멈춤’ 등 온열질환 예방 중요성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8일(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폭염 대응 상황 뿐만 아니라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농작업 멈춤’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① 육계 농가 방문

첫 번째로 방문한 육계 농장에서는 전북 내 육계 폭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쿨링패드 등 냉방·환기 시설을 살펴보는 한편, 여름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급이 등 농가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축사 관리 과정에서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전북은 전국에서 육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여름철 안정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폭염 대응이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육계를 비롯한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취약한 축종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농축협, 축산자조금을 통해 고온스트레스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찾아가는 살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상황실을 운영하여(7.29.~8.31.) 대응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

② 상추 시설하우스 방문

두 번째로 방문한 상추 시설하우스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상추 생육관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익산은 전북에서 상추 재배면적이 가장 큰 주산지로 여름철 안정적인 상추 공급을 위해 폭염 대응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엽채류 생육 특성 상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육지연,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대부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함에 따라 작업자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기상 및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한 약제,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과 함께 관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에 따른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농가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송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농축산물 생산 현장에서 애쓰시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면서 “현장에서는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 주시고, 관계기관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폭염특보 확인,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1-2317)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주무관	이용호 (044-201-2330)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주무관	방윤미 (044-201-2233)

